

美術作品을 통하여 본 齒科医学

Dental Disease Does Not Discriminate

에리사 베스 여왕의 충치

Elizabeth 여왕 1 세 (1558 ~ 1603) 는 충치에 대단히 고통을 많이 받았다. 충치와 풍치 때문에 외교적인 중대 결정을 취소하기도 하였다.

여왕은 30 세를 넘어 심한 치통으로 신경쇠약이 되어 1579 년경 시종들은 근심끝에 Fenatus 라는 치충치료를 잘하는 것으로 유명한 외국인 치과 의사를 초빙코저 하였다.

해서 시종들은 우선 그의 사가 여왕에게 사용할 약을 점검한즉 의사는 치통이 끝내 멈추지 않으면 발치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여왕은 겁을 먹고 승락하지 않았다.

궁리끝에 시종들은 여왕이 가장 신임하는 성직자 Elmer 로 하여금 아무렇지도 않은 그의 치아를 여왕이 보는 앞에서 뽑게하여 비로서 발치할 결심을 얻어 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DENTAL DISEASE DOES NOT DISCRIMINATE

研究와 精進을 指向하는

寶 城 合 金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465

代表 朴 允 三

☎ (253) 3411 · (255) 3024